

# 변화의 산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구절: 마태 17: 1-8 [마가 9:1-13; 누가 9:27-36]

마태복음 17:1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2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3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5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6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7 예수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 1. 제자들에게 주신 강력한 비전

이 “거룩한 산”에서의 경험에 참여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 경험이 잊을 수 없는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머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 16:21]. 이 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고난과 희생의 여정을 방해하려는 발언을 하자 주님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마 16:22-23]. 그리고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 16:24]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 뿐 아니라 제자들도 그러한 험악한 희생을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매우 심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이 갈릴리의 소박한 청년 전도자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할만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명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산 경험의 기록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를 전해 듣고 기록한 마태의 기록 이외에도 베드로로부터 직접 듣고 기록한 마가복음 9 장, 그리고 누가복음 9 장에도 기록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그 경험을 묵상하고 도움받도록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훗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기 바로 전에 교회들에게 쓴 서신에 이 거룩한 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모습을 본 경험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직접 그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귀로 확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16-18]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 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열두 제자들 중에서 선택되어 이와 같이 특별한 계시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부 출신으로 학식이 일천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승천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직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인 이 예수가 구약의 대언자들이 흠모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날 무려 3 천명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어 교회가 갑자기 크게 성장하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두려움 없이 신자들을 지도하고 교회의 성장을 관리하던 중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스테반 다음으로 일찍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후에 90 세가 넘어서 다시 한번 영광을 입은 주님의 모습을 계시로 보고 이를 계시록에 기록하여 주님의 예언 [마 16:28]을 이루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신약 교회의 태동기에 크게 기여할 이 세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자신을 위한 특별한 경험에 동참하도록 배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2. 격려 받으신 주님

제자들도 이 경험이 필요했지만 주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머지 않아 자신이 겪어야 하는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엄청난 경험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내려가서 천국 영광의 옷을 미리 입히시고 세 명의 선택된 제자들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입으신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님을 크게 격려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 힘든 경험을 곧 당하게 되실 주님의 마음을 격려하였습니다 [누 9:31].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제 마지막 고난의 여정을 가시는데 이 두 분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주님과 이야기 하신 것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격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격려 받았으므로, 이제 그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주님의 고난 여정에 힘을 주는 격려의 선행을 한 것입니다.

시내산 위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천사가 주 예수님이었고 [출 3:2], 이스라엘 백성의 진 앞과 뒤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서서 이들을 보호했던 천사가 주 예수님이었고 [출 14:18],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보호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천사로 나타나셨던 분도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출 23:23]. 대언자 엘리야가 실의에 빠져서 있었을 때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격려하여 다시 계속하도록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왕상 19:5-7].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삼년반 동안만 일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협력하여 일하신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이날 변화의 산에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모델을 봅니다.

### 3.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격려

코로나 19 역병이 인간 세상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늘 왕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의 마지막 시험의 여정을 앞두고 이렇게 훌륭한 격려의 경험을 주시고, 또한 그 특별한 경험에 그분의 제자 세분에게 함께 할 특권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다시 뵈오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하늘 왕국으로 올라가서 미래 세상일, 특히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미리 보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2-18]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13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15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16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17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이 세사람의 제자들이 경험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입고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시며,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 [계 1:8]의 모습을 접하고 온 몸에 전류가 흐르듯 감동에 휩싸인 경험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훌륭한 계시의 경험을 허락하시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접한 경험이 내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환란을 확신과 기쁨 가운데 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런 특별 경험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번 그 경험의 생각만 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온 몸과 마음을 뜨겁게 사로 잡을 것이며, 여러분의 심장 깊숙히 주님께 바치는 매일 생활을 하고자 하는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뿐 아니라 어떤 역경도 기쁨의 찬송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